교육실습 성찰일지

1. 현장실습 학교명: 대구 동촌중학교
2. 담임 학년: 2학년 3반
3. 수업 학년: 중학교 2학년
4. 총 수업 시수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총 수업 시수는 3차시를 수업하였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수업이다. 평상시에 학생들이 하현달과 상현달을 헷갈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평소에 생각하곤 했었는데, 적용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였고, 담당 선생님께서 가장 좋게 피드백 해주신 수업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1. 보람있었던 점과 힘들었던 점

보람있었던 점은 학생들과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수업을 만들면서 지금껏 이론으로 배워왔던 모형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연습해보면서,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해보면서 수업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힘들었던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실습생의 이동이 제한적이고, 같은 장소에만 있어야 했기에 그것이 조금 답답했고, 실제로 학생들을 마주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1. 학교현장실습 전후 교직에 대한 나의 생각

학교현장실습을 가기 전과 후에 역시 변함없이,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학생들과 마주치면 너무 좋을것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후배들을 위해 우리 수업에 바라는 점

우리 수업에 바라는 점은 조금 더 수업 시연 횟수를 늘려서 조금 더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